성공 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

2026년 4/4분기
기업경기전망조사(BSI) 보고서

2026. 9월

청주상공회의소

- 목 차 -

Ⅰ. 조사개요 1

Ⅱ.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 3

1. 종합전망 3

2. 항목별 전망 4

4. 규모·형태별 전망 5

Ⅲ. 기업경영 핵심변수 및 정책과제 6

2026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(BSI)

Ⅰ 조사개요

❍ **목적** : 도내 제조업체의 '26년도 4/4분기 경기전망을 조사·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제운용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

❍ **기간** : 2026. 8. 24.(월) ~ 9. 4(금) * 휴일제외 10일간

❍ **방법** : 실사조사, 우편 및 온라인 조사 병행

❍ **대상** : 도내 제조업체 1,120개 표본업체

❍ **내용** : 2026년 3분기 경기실적 및 2026년 4분기 경기전망

- 체감경기, 매출액, 설비투자, 자금사정 등
- 기업경영 핵심변수 및 정책과제 등

❍ **응답** : 255개사 <응답률 : 23.0%>

구분	대상업체	회수업체	회수율
청주	450	172	38%
충주	50	22	44%
음성	400	26	6.5%
진천	200	25	12.5%
제천단양	20	10	50%
합계	1,120	255	23%

※ 청주 지역은 청주시를 비롯해 괴산·옥천·영동·보은·증평 소재 기업을 포함함.

❍ **업종코드 분류**

구분	응답업체	구분	응답업체
반도체	10	배터리	7
전자제품 · 통신	17	정유 · 석유화학	7
자동차 · 부품	12	제약 · 바이오	16
기계 · 장비	29	섬유 · 의류	9
철강	8	식음료	31
전기장비	6	화장품	9
조선 · 부품	1	기타	93

※ 기타는 상기 업종코드 분류 외 다양한 제조업종을 포함함.

❍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의 작성방법

- 분기별로 응답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,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.
- BSI > 100 : 전 분기 대비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
- BSI = 100 : 경기호전과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의 비중이 동일함을 의미
- BSI < 100 : 전 분기 대비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
- BSI는 0~200의 범위에서 산출되며,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이,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나타냄

$$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} = \frac{\text{호전표시업체수} - \text{악화표시업체수}}{\text{총 유효응답 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BSI = Business Survey Index

$0 \leq BSI \leq 200$

❍ 조사결과 해석 시 참고사항

- 본 조사결과는 응답기업의 경기판단 및 전망을 지수화한 것으로, 실제 생산·매출 등 실물경제 지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- 분기별 BSI의 증감은 기업의 경기인식 변화를 나타내며, 기준치 100 미만에서 지수가 상승한 경우 경기호전보다는 경기악화 전망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.
- 업종 및 지역별 결과는 응답업체 수와 구성에 따라 전체 조사결과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.

□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담당부서 : **오철진 사업본부 본부장** (043-229-2741, iron@korcham.net)
김용희 사업본부 팀 장 (043-229-2720, kyhoe21@korcham.net)
이민형 사업본부 주 임 (043-229-2720, meinu0@korcham.net)
김민경 사업본부 사 원 (043-229-2745, kmink625@korcham.net)

Ⅱ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

1. 종합전망

2026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 체감경기 '75'
체감경기 부진 지속, 경기 회복 기대 여전히 제한적

❍ 2026년 4/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 체감경기 전망치는 75로 전 분기(80) 대비 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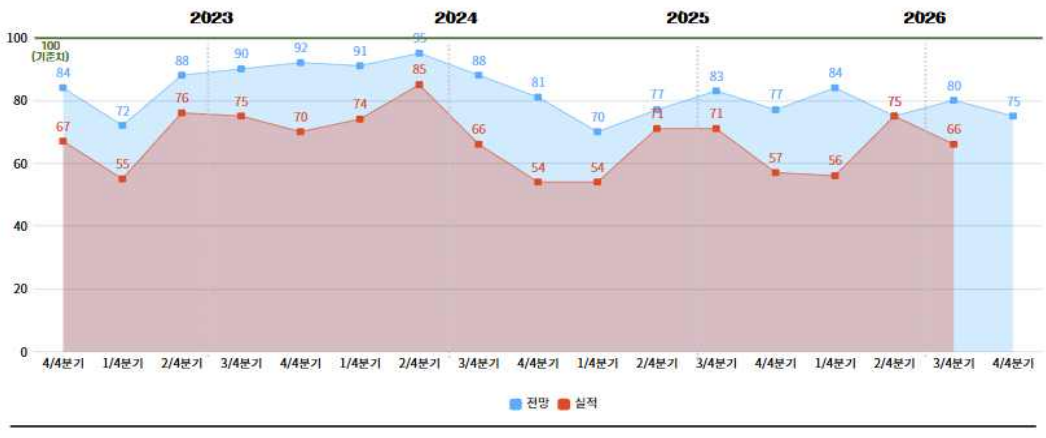
- 전 분기 소폭 상승했던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했으며, 기준치(100)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등 지역 제조업체의 경기 회복 기대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지역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, 원자재·에너지 등 생산비용 부담과 자금여건 악화 등 기업 경영부담이 지속되면서 도내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됨. * 충북지역 반도체 BSI응답기업 전망 '130'

❍ 한편, 2026년 3/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 체감경기 실적치는 66으로 전 분기 대비 9p 하락하며,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3분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경영성과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, 전망과 실제 체감경기 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.

기업경기실사지수(BSI) 체감경기 실적치 및 전망치 추이



자료 : 청주상공회의소

2. 항목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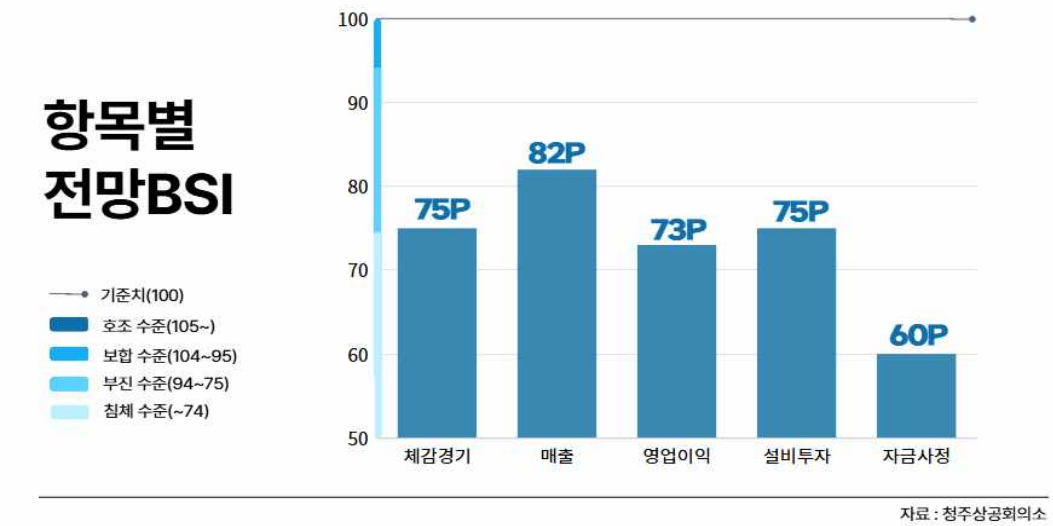
❍ 항목별 전망을 보면, 체감경기와 매출, 영업이익, 설비투자 및 자금사정 등 모든 항목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
- 체감경기(80→75)는 5p, 매출(89→92)은 7p 하락하며 '부진(94~75)' 수준을 기록했으며, 영업이익(80→73)과 자금사정(74→60)은 각각 7p, 14p 하락하며 '침체(74p이하)' 수준에 머무름

- 특히, 설비투자(96→75, 21p 하락)의 경우 원자재·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신규 투자에 대한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보임.

<항목별 전망 BSI>

항목 / 분기	체감경기	매출	영업이익	설비투자	자금사정
2025년 4/4분기	77	84	74	90	76
2026년 1/4분기	84	85	80	88	75
2026년 2/4분기	75	89	82	93	78
2026년 3/4분기	80	89	80	96	74
2026년 4/4분기	75	82	73	75	60



3. 규모 · 형태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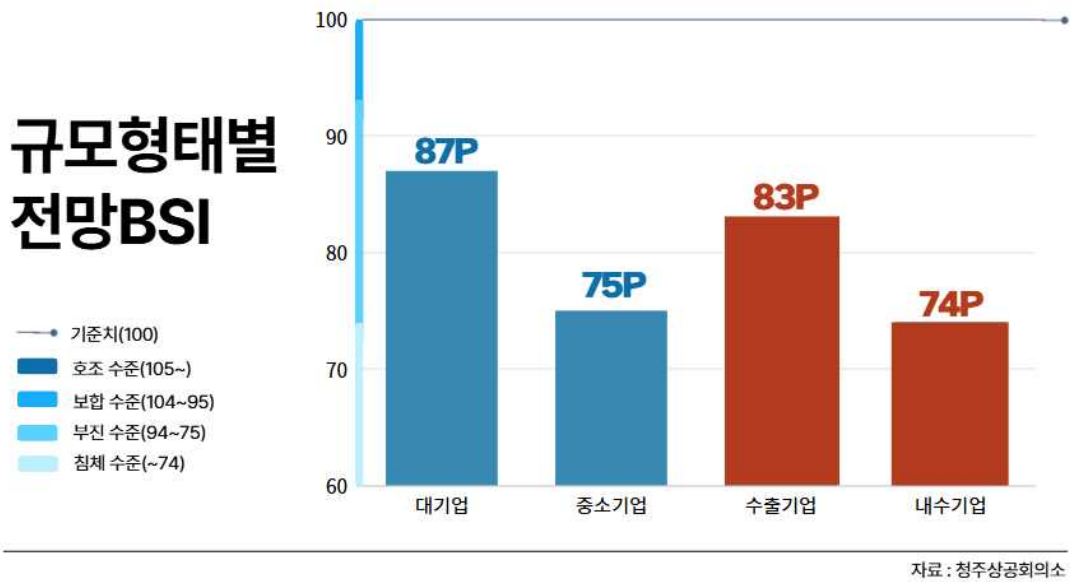
❍ 규모·형태별 전망을 보면, 대기업과 중소기업, 수출기업 및 내수기업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하며 경기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.

- 규모별로는 대기업(100→87)이 전 분기 기준치까지 회복했으나, 대외 불확실성과 업종별 경기 회복의 편차 등이 이어지며 다시 기준치를 하회했고, 중소기업(79→75)도 4p 하락하며 여전히 부진 수준에 머무름

- 형태별로는 수출기업(95→83)이 최근 수출 회복세가 일부 주력품목에 집중되면서 기업 전반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부진 수준을 기록했으며, 내수기업(77→74)도 3p 하락하며 침체 수준에 머무름.

<규모·형태별 전망 BSI>

구분 / 분기	규모별		형태별	
	대기업	중소기업	수출기업	내수기업
2025년 4/4분기	80	76	80	76
2026년 1/4분기	80	84	108	78
2026년 2/4분기	64	76	83	74
2026년 3/4분기	100	79	95	77
2026년 4/4분기	87	75	83	74



자료 : 청주상공회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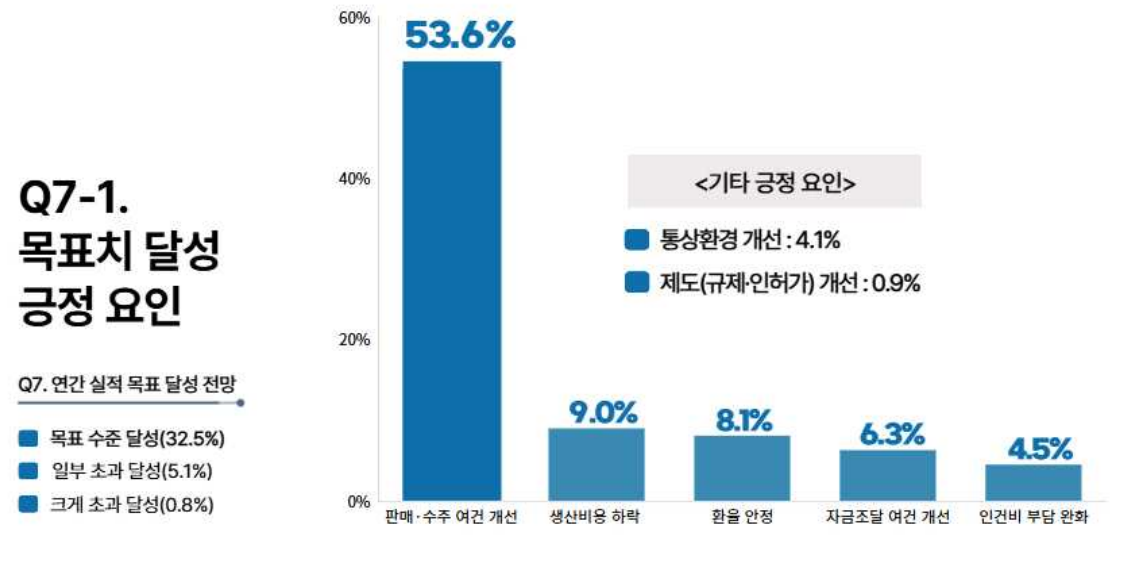
Ⅲ 기업경영 핵심변수

❍ 7번. 귀사의 올해 실적(영업이익)이 당초 계획했던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

구분		비중(%)
①	크게 미달	18
②	일부 미달(10%이내)	43.5
③	목표 수준 달성	32.5
④	일부 초과 달성(10%이내)	5.1
⑤	크게 초과 달성	0.8

❍ 7-1번. 올해 목표치 달성에 있어 현재 귀사의 가장 큰 긍정 요인은 무엇입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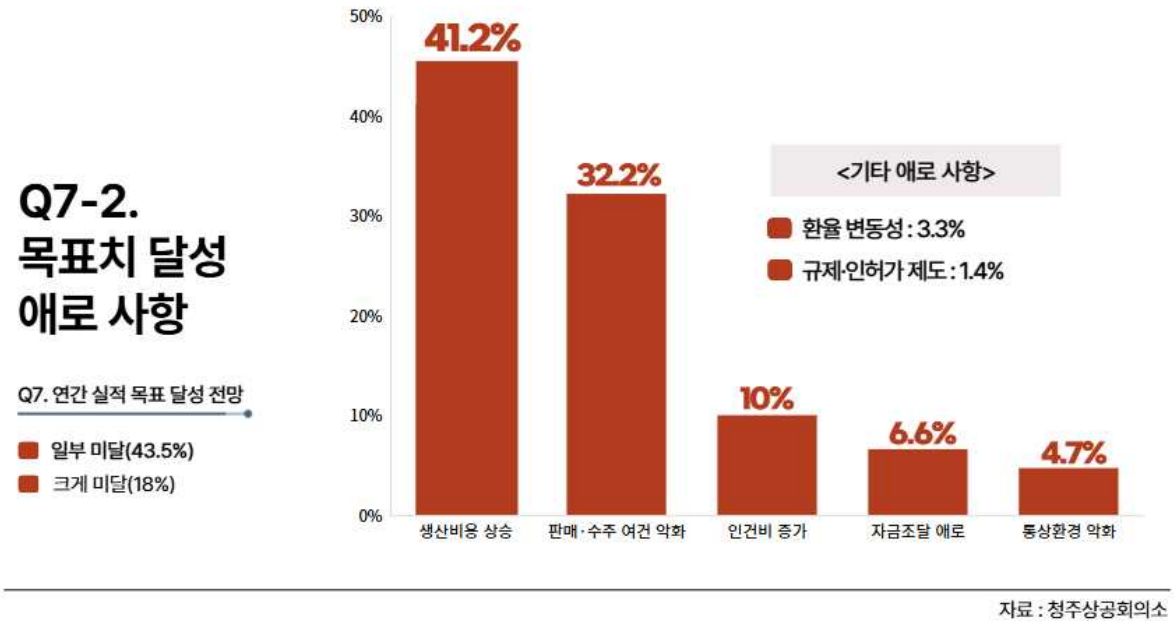
구분		비중(%)
①	판매·수주 여건 개선	53.6
②	원자재·에너지 등 생산비용 하락	9
③	금융비용 감소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	6.3
④	환율 안정	8.1
⑤	인건비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인력 확보	4.5
⑥	통상환경 개선 (공급망 안정, 관세 인하 등)	4.1
⑦	제도(규제·인허가) 개선	0.9
⑧	기타	13.5



자료 : 청주상공회의소

❍ 7-2번. 올해 목표치 달성에 있어 현재 귀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?

구분		비중(%)
①	판매・수주 여건 악화	32.2
②	원자재・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	41.2
③	금융비용 증가 및 자금조달 애로	6.6
④	환율 변동성	3.3
⑤	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	10
⑥	통상환경 악화 (공급망 불안, 관세 등)	4.7
⑦	규제・인허가 등 제도	1.4
⑧	기타	0.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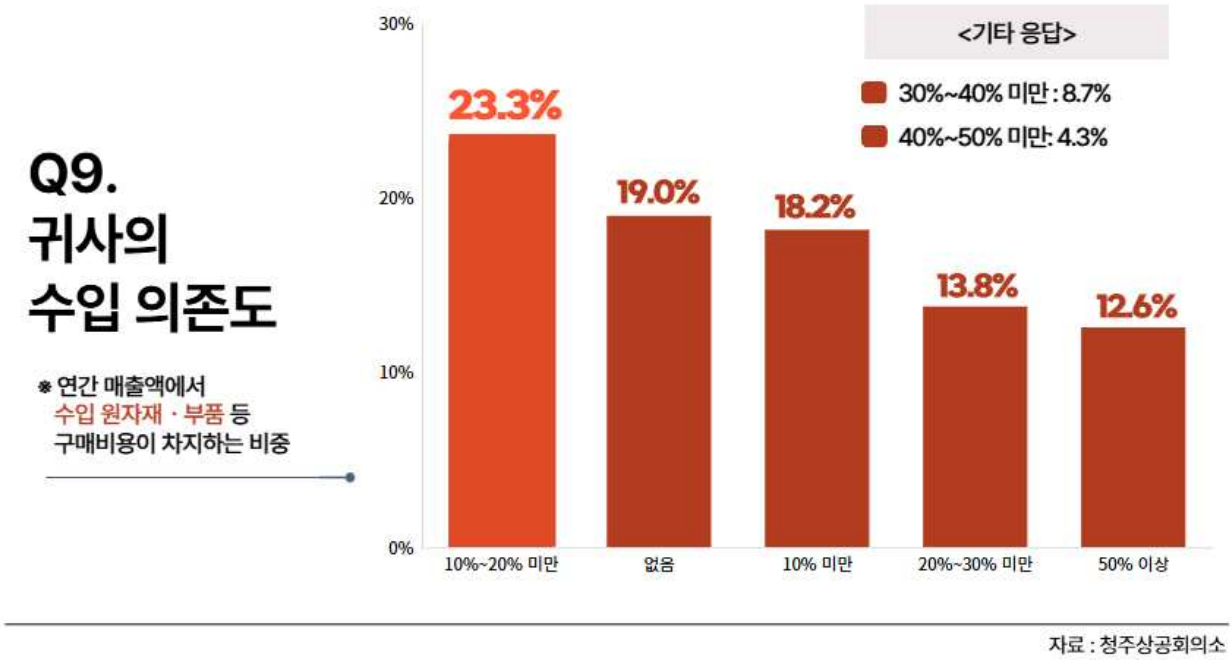
❍ 8번. 귀사가 안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원·달러 환율 수준은 얼마입니까?

적정 환율: (평균 1,348)원

※ 참고: 원・달러 환율 1,359..10원 (9월 18일 15:30 종가 기준)

❍ 9번. 귀사의 수입 의존도(연간 매출액에서 수입 원자재·부품 등 구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)는 어느 정도입니까?

구분		비중(%)
①	없음 (전량 국내 조달)	19
②	10% 미만	18.2
③	10% 이상 20% 미만	23.3
④	20% 이상 30% 미만	13.8
⑤	30% 이상 40% 미만	8.7
⑥	40% 이상 50% 미만	4.3
⑦	50% 이상	12.6



❍ 10번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구분		비중(%)
①	지역 소재 기업 세제혜택 강화 (법인세 감면 등)	25.9
②	**지역 투자 보조금·정책금융 확대**	**27.8**
③	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 (전력·용수 등)	4.2
④	지역 인력난 해소 (지역 대학 채용 연계, 외국인 노동자 등)	13.4
⑤	지역 소재 기업 AI 전환 지원 (스마트공장 등)	3.2
⑥	지역 소재 기업 대상 규제 완화 (노동·환경 규제 등)	14.8
⑦	위기산업·지역 지원 확대	7.9
⑧	기타	2.8

